



# KBS교향악단의 유엔 총회장 연주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정식 음악회를

강일모 / 문화일보 기자

1,790 석의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에서 각국 유엔 대사와 문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KBS교향악단이 연주회를 갖는다고 해서 화제다. 정명훈씨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첼리스트 정명화, 소프라노 신영옥, 김덕수 사물놀이 등이 출연하는 이 음악회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여기서 중견 작곡가 강준일씨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마당」이 연주되며, 우리나라 사물놀이가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된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KBS교향악단은 처음 연주하지만 유엔 총회장은 그간 로스트로포비치 등의 음악가들이 종종 연주를 가져왔다. 하지만 KBS교향악단의 유엔 총회장 연주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히는 정치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총회장이 정식 음악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이나 베를린 필하모닉홀에서 연주를 갖는다는 것에 비해 음악적 의미는 약하다. 즉, 음악적으로는 KBS가 베를린 필하모닉홀에서 초청 받는 것이 더욱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KBS의 유엔 총회장 연주회에서 새겨볼 만한 부분은 따로 있다. 우리나라 국회나 청화대에서도 음악회를 가졌던가 하는 점이다. 물론 열린 음악회라는 형식으로 국회와 청와대 뜰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고전 음악인들이 주역이 된 연주회가 치러진 적은 있다. 그러나 國事を 논하는 의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식 음악회가 열린 기억이 없다. 우리나라 천재 첼리스트 장한나양이 동아그룹 최원석씨가 마련해준 고가의 첼로를 청와대에서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영부인과 함께 다과를 나눈 적은 있어도 정식 첼로 연주회를 갖지는 못했다.

최근 예술의 전당은 96년도 대관 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100여 명의 공연 관계자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내년도 전당 대관도

예년과 같이 5 대 1에서 10 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보일 전망이다. 우리는 심각한 공연장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공연장의 추가 건설이 요구되지만 사회간접자본, 첨단 사업 등 천문학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문화계가 국가에게 공연장 건립을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대신 국회나 청와대, 대학교 강당, 구민 회관 등 기존의 실내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음악계는 사람 물리는 전당만을 고집하며 공연장 부족을 하소연하지 말고, 남산에 주차장 시설도 훌륭한 국립극장이 대관 신청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도 눈을 떠야 한다.

또 전당측은 공평을 기한다며 각 단체에게 연간 1회 공연 등 나눠먹기식 대관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정상급 연주회만을 엄격 선발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당을 국내 최고 권위의 공연장으로 명성을 지켜갈 의무가 있다.♣

## 95년 10월에 열릴 주요 음악회

- 엠파이어 금관 5중주단 내한연주회:  
10월 3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 국제오페라단, 현제명 작곡 「대춘향전」:  
10월 6일~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피아니스트 백혜선 10 개 도시 순회연주회:  
10월 11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 장 피에르 랑팔 플루트 독주회:  
10월 16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 오페라 상설무대, 김동진 작곡 「심청」:  
10월 16일~19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 파르네리 현악 4중주단 연주회:  
10월 17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